



보완·대체요법관련 국내 간호연구의 동향분석

한경순¹⁾ · 임난영²⁾ · 송경애³⁾ · 홍영혜⁴⁾ · 김종임⁵⁾ · 김경희⁶⁾ · 조남옥⁷⁾

서 론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의 온갖 질병과 고통을 자연의 치유능력에 맞추어 조율해 주고 복원시켜 주는 의학으로 정의(Oh, 1998)되는 대체의학이 환자 혹은 일반인들의 무분별한 사용이나 그로 인한 합병증 등에 대한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들어 일반인들뿐 아니라 간호계를 포함한 의료계에도 중요하게 대두되었다.

과학적 의학의 메카라 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1992년 국립보건원 내에 대체의학연구위원회가 설립되었다(Im et al., 2001). Eisenberg, Kessler와 Foster 등(1993)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 성인 3명 중에 1명은 대체요법을 사용한 경험이 있었고, 대체요법에 사용된 비용이 137억달러로 미국의 연간 지출 의료비 128억달러보다 많았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Jeong 등(1998)는 증상이나 질병이 있는 일반인 794명을 대상으로 대체의료 이용형태를 조사하였는데, 대상자의 61%가 대체의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Son(1999)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부작용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인체 해독기관인 간에 이상이 있는 만성간질환자들이 대체요법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이용자들은 '좋아진다' '낫는다'고 확신을 주는 대체요법사로부터 안도감을 얻었고 그들을 신뢰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대체의학 또는 대체요법에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로

Kottow(1992)는 과학성을 표방하는 현대의학이 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함을 들었는데, 질병양상의 변화로 암이나 심혈관성 질환과 같은 주된 사망원인인 질환이나 관절염, 만성통증과 같은 만성질환에 대해 치료가 아닌 증상완화만을 제공하는 제한점을 보이고 있다. 또한 질병과 증상 중심의 전통적으로 의학적 모형이 주된 의료환경은 질병을 가진 인간보다는 단지 질병이 있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도 대체요법을 찾게 하는 요인이 된다. 이와 관련 환자들은 자신이 무시되고 있음을 느끼게 되어 자신의 전체성을 존중하고 개별적인 접근을 강조하는 대체요법에 관심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

나이팅게일은 간호를 "자연적으로 건강을 회복하거나 유지하고, 질병이나 상해를 예방하거나 치유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좋은 상태로 만들어 주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간호의 총체적 관점을 표현하였는데, 이러한 접근법은 간호전문직과 일차적인 연관이 있다. 또 이들 보완·대체요법의 수행은 간호사에게 의사와 의료기관으로부터 높은 수준의 자율성과 독립성 그리고 간호실무를 풍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간호사들이 많이 사용하는 보완·대체요법에는 치료적 접촉, 음악, 소리요법, 미술요법, 향기요법, 그리고 이완요법과 같은 것이 있다(Im et al., 2001).

실제로 우리나라의 간호학분야에서도 관절염환자(Kim & Kang, 1999)나 유방암환자(Park & Jung, 1995)의 민간요법 이용실태에 대한 연구, 발반사요법이 대상자의 생리적 지수 및 불안에 미치는 영향(Cha & Park, 2001)과 같은 보완·대체요법을 이용한 실험연구가 수행되었다. 또한 암환자(Go &

주요어 : 보완·대체요법, 연구동향

1) 신홍대학교 간호과, 2) 한양대학교 간호학과, 3)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4) 춘해대학 간호과
 5) 충남대학교 간호학과, 6) 중앙대학교 간호학과, 7) 한국방송대학교 간호학과(교신저자 E-mail: okcho@knou.ac.kr)
 투고일: 2003년 11월 20일 심사완료일: 2003년 12월 24일

Chung, 2000)와 만성간환자(Son, 1999)의 대체요법 추구경향과 같은 질적연구가 수행되었으나 간호연구에서 적용된 보완·대체요법의 구체적 내용과 보완·대체요법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사용되는 개념들, 특히 보완·대체요법을 받는 대상자에 대한 분석까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보고는 극히 미미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보완·대체요법 관련 간호연구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보완·대체요법의 대상자에 대한 이해를 높임과 동시에 이들의 총체적 존재로서의 안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러면서 간호전문직의 독자적 간호중재 영역의 확보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향후 이들 분야에 대한 간호연구의 방향제시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보완·대체요법 관련 논문의 특성을 분석한다.
- 보완·대체요법 관련 논문의 대상자의 특성(질병 혹은 증상)을 조사한다.
- 보완·대체요법 관련 논문에서 다루어진 치료유형을 조사한다.
- 보완·대체요법 관련 논문의 주개념을 조사한다.

연구 방법

대상논문의 선정

1990년 1월부터 2002년 6월까지 간호학 관련학회지와 학위 논문을 대상으로 보완·대체요법을 주제로 한 논문을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자들이 직접 논문집을 보면서 선택함과 동시에 Jeong 등(1998)이 제시한 분류체계의 개념으로 보건연구정보센터(www.richis.org)를 이용해 탐색한 후 최종적인 선택여부는 연구팀의 논의를 거쳐 이루어졌다.

치료형태분석틀

대체요법에 대한 분류는 나라마다 다를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국립보건원산하 대체의료분과에서 사용한 것으로 정신-신체 중재치료, 생전기자장치료, 대체의학체계, 수기요법, 약물치료, 약초요법, 식이와 영양요법의 7개의 분류체계를 이용하였다(Jeong et al., 1998).

- 정신-신체 중재치료는 정신과 육체가 서로 깊이 관련되어 있음을 전제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정신치료, 바이오피드백, 미술치료, 음악치료, 이완요법, 최면요법, 명상, 요가, 무용치료, 기도와 영적 치유, 운

동요법(movement therapy) 등이 포함된다.

- 생전기자장치료는 살아있는 생명체와 전자기장과의 상호작용을 이용한 치료를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 잘 붙지않는 꿀절의 치료에 전기적 자극이나 자기장을 이용한 것이다.
- 대체의학체계는 전통중국의학, 인도의 전통의학인 आयुर्वेद(아유르베다)의학, 동종의학, 침술 등이 속한다.
- 수기요법은 손을 이용한 치료로서 정골요법, 척추교정요법, 스트레칭, 마사지요법, 물리치료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 약리생물학적으로 케일리트제나 상어연골을 관상동맥질환이나 암환자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와 꿀벌요법, 아로마요법, 광선요법 등이 포함된다.
- 약초요법은 한약, 인삼, 은행잎 추출물, 민간요법 등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식이와 영양요법은 일일 요구량보다 많은 다량의 비타민과 미네랄을 투여하는 것 등이다.

연구 결과

보완·대체요법 관련 논문의 특성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상 논문의 발표년도를 보면 1990년부터 1994년까지는 1편~5편의 분포이나 1995년 8편으로 증가하였으며, 1998년 이후 10편, 1999년에 19편 등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2001년에는 32편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논문의 종류는 61.7%(71편)가 석·박사학위논문이었으며, 38.3%(44편)은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이었다.

연구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대학원학위자가 61.7%(71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간호학교수로 30.4%(35명)이었고, 임상간호사가 7%(8명)이었으며, 다른 분야 종사자는 0.9%(1명)이었다.

사용된 연구설계는 전체의 93.9%(108편)가 양적연구였으며, 4.3%(5편)이 질적연구였고 1.7%(2편)만이 종설이었다. 108편의 양적연구 중에서는 순수실험연구가 0.9%(1편), 유사실험연구가 69.5%(75편)였으며 원시실험연구가 13.9%(15편)으로 실험연구가 84.3%로 훨씬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비실험연구가 15.7%(17편)였으므로 나타났다.

보완·대체요법 관련 논문의 대상자의 특성

보완·대체요법논문의 대상자에 따른 분류는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환자가 61.7(71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다음으로는 일반인이 25.2%(29명), 간호사가 7%(8명), 간호학생이 4.3%(5명)의 순이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article

		N(%)
Number of theses by the year	1990	1(0.9)
	1991	2(1.8)
	1993	5(4.3)
	1994	3(2.6)
	1995	8(7.0)
	1996	3(2.6)
	1997	6(5.2)
	1998	10(8.7)
	1999	19(16.5)
	2000	20(17.4)
Classification of research	dissertation	
	master degree	36(31.3)
	doctoral degree	28(24.4)
	theses	51(44.3)
Position & place of researchers	professional nursing educator	35(30.4)
	clinical nurse	8(7.0)
	other department	1(0.9)
	students	71(61.7)
Type of research design	quantitative study	
	non-experimental designs	17(14.8)
	true-experimental design	1(0.9)
	quasi-experimental design	75(65.2)
	pre-experimental design	15(13.0)
	qualitative study	5(4.3)
literature review	2(1.8)	
Total		115(100)

환자 중에서는 자궁적출술, 백내장수술, 폐엽절제술, 수술전 환자를 포함하여 수술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14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재가 및 입원정신질환자 대상논문이 9편으로 많았다. 다음으로는 신부전증이나 혈액투석환자, 고혈압환자, 관절염환자, 치매환자 대상논문이 각각 5편씩이었으며, 이외에 암환자, 편마비환자, 강직성 척추염, 심도자술 받는 환자, 허혈성 심질환자, 욕창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 논문이 1-2편씩이었다. 또 환자는 아니었지만 증상이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요통, 생리통이나 월경전 증후군, 우울성향, 스트레스, 낙상위험 등의 상황이 전제되었다.

대상자의 발달단계별 분포를 보면 성인이 67.8%(7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노인으로 14.8%(17명), 청소년(adolescence)이 4.3%(5명), 어린이가 2.6%(3명)의 순이었다.

대상자의 residence에 따른 분포는 지역사회가 56.5%(65명)으로 임상상황의 40.0%(46명)보다 많았으며, 대상자 선택기준을 밝힌 논문이 93.9%(108편)이었으며 6.1%(7편)이 밝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연구참여와 관련된 윤리적 고려에 대해서 79.1%(91편)이 구두로 동의를 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0.9%(1편)은

서면으로 동의를 받았다. 그러나 20%(23편)는 연구참여 동의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Items about study participants

Items about study participants		N(%)
Characteristics	patient	71 (61.7)
	nurse	8 (7.0)
	nurse student	5 (4.3)
	ordinary person	29 (25.2)
	animate objects	2 (1.7)
Age	child	3 (2.6)
	adolescence	5 (4.3)
	adult	78 (67.8)
	elderly	17 (14.8)
	non present	7 (6.1)
	no relation	5 (4.3)
Residence	clinical setting	46 (40.0)
	community	65 (56.5)
	no relation	4 (3.5)
Present of choosing and excluding criterion	yes	108 (93.9)
	no	7 (6.1)
Ethical considerations	a verbal consent	91 (79.1)
	a written consent	1 (0.9)
	no present	23 (20.0)

보완·대체요법 관련 논문에서 다루어진 치료유형

정신-신체 중재치료, 생전기자장치료, 대체의학체계, 수기요법, 약물치료, 약초요법, 식이와 영양요법의 7개의 분류체계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양적연구방법이 적용된 108편의 대상 논문들에서 다루어진 치료유형은 <Table 3>과 같다.

정신-신체 요법이 65.8%(71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수기요법으로 28.7%(31편)과 약리생물학적 요법이 3.7%(4편)이었다. 그러나 생전기자장치료와 약초요법은 각각 0.9%(1편)이었으며, 대체의학체계와 식이 및 영양요법 관련논문은 한편도 없었다.

71편의 정신-신체요법관련 논문에서 다루어진 요법을 세분하여 보면, 운동요법이 15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음악요법과 이완요법으로 각각 12편에서 사용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심상요법이 7편에서, 그리고 요가가 6편에서 사용되었으며 춤 요법이 4편에서 사용되었다. 바이오피드백을 이용한 논문이 2편이었으며 미술요법이 1편에서 다루어졌다. 이외에 기타로 분류된 것이 12편이었다.

108편 중 31편에서 사용된 수기요법을 다시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치료적 마사지가 9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반사학이 7편에서 다루어졌고, 침술이 4편에서 다루어졌다.

또한 카이로프랙티스와 치료적 접촉이 각각 1편에서 사용되었다. 약리생물학적 요법에서는 아로마요법이 3편에서 이용되었다.

<Table 3> Type of alternative therapy

type	N(%)	count	
Mind-body therapy	71(65.8)	art therapy	1
		biofeedback	2
		dance therapy	4
		imagery	7
		music therapy	12
		yoga	6
		relaxation therapy	12
		movement therapy	15
		extra method	12
		Bioelectromagnetics	1(0.9)
Manual healing therapy	31(28.7)	acupuncture	4
		applied kinesiology	1
		chiropractic	1
		reflexology	7
		therapeutic massage	9
		therapeutic touch	1
Herbal therapy	1(0.9)	herbal therapy	1
		Pharmacologic & biological therapy	4(3.7)
		light therapy	1
Total	108(100)		108

보완·대체요법 관련 논문의 주개념

본 연구대상 논문에서 사용한 주개념은 3-4개를 사용한 논문이 전체의 61.7%(71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5-6개로 24.3%(28편), 1-2개가 11.3%(13편)이었으며, 7개 이상인 경우도 2.6%(3편)이었다. 이중 91편의 실험설계 연구논문들에서 사용된 종속변수로 사용된 주개념을 크게 신체적 측면과 심리적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신체적 측면의 개념을 본 논문이 34편, 심리적 측면의 개념을 주개념으로 한 논문이 13편이었으며, 44편이 신체적, 심리적 개념을 모두 본 것으로 나타났다.

주개념을 분석하면 심리적 변수들에서는 불안이 31편에서 사용되어 가장 많은 빈도수를 보였으며, 다음이 우울로 17편, 스트레스가 8편, 정서상태 혹은 정서반응이 7편에서 사용되었다. 이외에 자아존중감이 4편, 삶의 질, 자기효능감, 심리적 반응(혹은 심리적 기능)이 3편에서 각각 사용되었으며, 심리적 안녕, 유머대처, 생활만족, 자기개념이 각각 2편에서, 그리고 자아통합감, 정신건강상태, 심상능력 및 기분이 각각 1편에서 사용되었다.

신체적 변수에서는 통증(요통포함)이 24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신체기능(신체적 건강)과 혈압을 포함한 활력징후가 각각 12편에서 사용되었으며 생리적 지수(혹은 생리적 반응)이 9편에서 사용되었다. 생리통이 6편에서, 피로와 행동(상태) 및 ADL이 각각 5편에서 그리고 불편감이 4편에서, 수면과 분만통, 인지능력 및 면역기능이 각각 3편에서, 그리고 피부온도, 분만시간, 하지부종, 혈중 콜티졸, 피부혈류가 각각 2편에서 사용되었다. 또 냉증, 피부건조, 소양증, 폐환기능, 관절

<Table 4> Themes of study

themes	count		
Psychological parameter	anxiety	31	
	depression	17	
	stress	8	
	emotional status	7	
	self-esteem	4	
	quality of life	3	
	self-efficacy	3	
	emotional response	3	
	psychological wellbeing	2	
	humor	2	
	life satisfaction	2	
	self-concept	2	
	self-integrity	1	
	mental health	1	
	imagery ability	1	
	mood	1	
	Physiological parameter	pain, back pain	24
		physiological function	12
BP, V/S		12	
physical response		9	
menstrual pain		6	
fatigue		5	
behavioral state		5	
ADL		5	
discomfort		4	
sleep		3	
labor pain		3	
cognitive ability		3	
immunological capacity		3	
skin temperature		2	
labor time		2	
leg edema		2	
blood cortisol level		2	
skin circulation		2	
skin driness	1		
pruritus	1		
lung ventilation	1		
ROM	1		
body weight	1		
flexibility	1		
urinary symptom	1		
dysuria	1		
dyspnea	1		
blood aldosterone level	1		
saliva immune globuline	1		

가동범위, 체중, 유연성, 하부요로증상, 배뇨곤란, 호흡곤란, 혈중 알도스테론, 타액면역글로블린이 각각 1편에서 사용되었다.

논 의

Averis(1995)는 만성질환자들은 질병의 완쾌에 대한 불확실성과 현대의학의 한계를 인식하고 질병회복을 기대하면서 마지막 치료법으로 보완·대체요법을 선택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 결과 환자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 약 62%인 71편이었으며, 이들 중 수술환자를 대상으로 한 14편과 심도자술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1편을 제외한 55편이 신부전증, 고혈압환자, 관절염환자, 암환자와 같은 만성질환자였다. 환자가 아닌 경우에는 요통, 생리통이나 월경전 증후군, 우울성향, 스트레스, 낙상위험 등의 증상 혹은 건강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대상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보완·대체 치료 간호학 논문의 연구 동향을 분석한 Yang과 Shin(2003)의 연구에서 질환자 중에서는 급성질환자 보다는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았으며 구체적으로는 암환자, 고혈압, 당뇨병환자, 관절염환자, 뇌졸중환자, 심질환자, 간질환자, 혈액투석환자, 정신질환자의 순으로 나타났다는 것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또 간호사 및 학생을 포함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42편에 이르러 Jeong 등(1997)이 말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성인들에게 대체요법의 시행은 건강한 사람이나 불건강한 사람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건강관리행위로 현존하고 있다고 한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이팅게일은 간호가 인간에 대한 총체적 관점을 지향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 점에서 보완·대체요법과 일치되는 부분이 있다. 총체적 간호의 목표는 건강을 증진하고 치유를 촉진하며 고통을 경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간호사는 간호사 신체, 마음, 그리고 정신의 인간 전체를 치료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하는데 미국 총체적 간호사회(American Holistic Nurse's Association)는 총체적 간호의 목표 중 하나는 총체성을 간호사의 생활 속에 통합하는 것이며, 보완·대체요법의 수행은 간호사에게 의사와 의료기관으로부터 높은 수준의 자율성과 독립성 그리고 간호실무를 풍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고 하였다(Im et al., 2001).

본 연구결과에서도 이와 같은 간호학의 총체적 관점이 반영된 정신-신체 요법이 65.8%(71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수기요법으로 28.7%(31편)이었다. 수기요법의 많은 사용은 Yang과 Shin(2003)의 연구에서 지압이 가장 많이 연구되었다는 점과 일치하는 것이다.

보완·대체요법의 적용효과와 관련해서 대체의학은 표준화된 의학적 진단을 중요하게 고려하기 보다는 증상의 제거와

안녕의 증가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치료의 성공은 환자의 주관적인 평가에 의존하며 질병에 대한 환자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Park과 Jeong(1995)의 연구에 의하면 민간요법을 이용함으로써 불안감제거와 정신적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특히 환자들이 불안할 때, 병의 재발이 두려울 때, 신체적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고 느낄 때 민간요법을 이용하였으며, 불확실한 자신의 생명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한다고 하였다. 또 환자의 남편이나 친척들은 유방암환자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하며, 그 방법의 하나로 민간요법을 소개하거나 사용하도록 권하였으며 이것은 남편이나 가족 혹은 친척들이 나타내는 마음의 표현이나 애정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또 환자들은 가족이 자신에게 관심이 있음을 기뻐하게 되고 위로를 받으며 이러한 상황을 자랑하였다.

만성 간질환자의 대체요법 추구행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를 연구한 Son(1999)의 연구에서도 참여자들은 가족의 권유에 의해 대체요법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실제 부작용을 경험한 경우에도 가족의 권유는 계속되었다고 그 경험을 말하고 있다.

Yang과 Shin(2003)의 연구에서는 심리적인 면과 신체적인 면이 있는데, 심리적인 면에서는 불안, 우울에 대한 연구가 많았으며 신체적인 면에서는 면역계, 순환계와 피부계에 대한 연구가 많았다고 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심리적 변수들에서는 불안과 우울이 가장 많이 사용되어 같은 결과를 보였으나 신체적 변수에서는 통증(요통포함)과 신체기능 및 활력징후 등이 높은 빈도수를 보여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anush(1994)는 대체요법의 과학성 결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엉터리 치료로 생긴 문제를 이해해야 한다고 하였다. 대체요법은 과학으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현대인의 시각에 대치되는 것으로 샤머니즘, 사기, 한때의 유행과 경향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homas, Carr와 Westlake 등(1991)은 연구대상자 중 대체요법사를 찾는 환자의 18%는 비전통치료와 의사의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고 하였고 Son(1999)의 연구결과에서도 간질환자들은 병원 치료와 대체요법을 비교하면서 대체요법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특히 매 방문시마다 똑같은 의사의 처방과 다르게 대체요법사들의 처방은 자신의 상태에 따라 구체적인 처방을 제공했으며, 참여자들은 '좋아진다', '낫는다'고 확신을 주는 대체요법사로부터 안도감을 얻었고 그를 신뢰한다고 하였다.

Jang과 Park(2003)은 보완·대체요법에 대해 간호사의 72.7%가 긍정적이며, 의사는 57.1%가 긍정적이라고 하였으며,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의사소통에서 의사는 66%가 긍정적이며, 간호사는 73.7%가 긍정적으로, 간호사가 의사보다 보완·

대체요법의 실무적용에 더 긍정적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Son과 Suh(1998)의 연구결과에서는 만성 간질환자의 82.1%가 대체요법 사용에 대한 의사의 부정적인 반응을 경험했다고 응답하여 의사와의 의사소통이 폐쇄적임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분위기로 인해 대부분의 환자들은 의사에게 대체요법의 사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의사와 간호사의 대체요법에 대한 태도가 환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할 필요도 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1990년부터 2002년 6월까지의 간호학관련 학회지와 간호학 석박사 학위논문 115편을 대상으로 보완·대체요법 관련 논문을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보완·대체요법 관련 간호학 논문은 1995년부터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용된 연구설계는 전체의 93.9%(108편)가 양적연구였으며, 4.3%(5편)이 질적연구였고 1.7%(2편)만이 총설이었다. 108편의 양적연구 중에서는 비실험연구가 15.7%(17편)였으며, 순수실험연구가 0.9%(1편), 유사실험연구가 69.5%(75편)였으며 예비실험연구가 13.9%(15편)으로 실험연구가 84.3%로 훨씬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보완·대체요법 관련 간호학논문의 대상자는 환자가 61.7%(71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다음으로는 일반인이 25.2%(29명), 간호사가 7%(8명), 간호학생이 4.3%(5명)의 순이었다. 환자 중에서는 수술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14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재가 및 입원정신질환자 대상논문이 9편으로 많았다. 다음으로는 신부전증이나 혈액투석환자, 고혈압환자, 관절염환자, 치매환자, 암환자, 편마비환자등 만성퇴행성질환자가 주류를 이루었다.

대상 논문들에서 사용된 치료내용은 정신-신체 요법이 65.8%(71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수기요법으로 28.7%(31편)과 약리생물학적 요법이 3.7%(4편)이었다. 그러나 생전기차장치료와 약초요법은 각각 0.9%(1편)이었다. 정신-신체요법에서는 운동요법, 음악요법 그리고 이완요법이 많이 사용되었다. 수기요법에서는 치료적 마사지가 9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약리생물학적 요법에서는 아로마요법이 3편에서 이용되었다.

보완·대체요법의 효과와 관련된 개념분석 결과 신체적 측면의 개념을 다룬 논문이 34편, 심리적 측면의 개념을 주개념으로 한 논문이 13편이었으며, 44편이 신체적, 심리적 개념을 모두 다룬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변수들에서는 불안, 우울, 스트레스, 정서상태 혹은 정서반응이 많이 사용되었으며, 신체적 변수에서는 통증(요통포함), 신체기능(신체적 건강), 혈압을 포함한 활력징후, 생리적 지수(혹은 생리적 반응) 등이 많이 사용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다음의 연구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간호사에 의한 보완·대체요법을 수행받고 있는 환자의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간호사의 보완·대체 요법 수행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Averis, A. (1995). Complementary therapies and epilepsy: A nursing perspective. *The Aust J of Holistic Nurs*, 2(2), 26-32.
- Cha, N. Y., & Park, S. A. (2001). Effects on the frequencies of self-foot reflex massage seen in the physical index and anxiety level of hypertension workers. *J Korean Comm Nurs*, 12(2), 375-389.
- Eisenberg, D. M., Kessler, R. C., Foster, G., Norlock, F. E., Calkins, D. R., & Delbanco, T. L. (1993). Unconventional medicine in the united states: Prevalence, costs, and patterns of use. *The New England J of Med*, 328(4), 246-252.
- Go, D. S., & Chung, Y. K. (2000). The experiences of trial alternative therapies for cancer patients. *J Korean Acad Soc Home-care Nurs*, 8(2), 37-54.
- Gordon, J. S. (1996). Alternative medicine and the family physician. *Am Fam Physician*, 54, 2205-2220.
- Im, N. Y., Song, K. A., Hong, Y. H., Kim, J. I., Kim, K. H., Cho, N. O., & Han, K. S. (2001). *Complementary · alternative therapy and nursing*. Seoul: Soo Moon Sa com.
- Jang, E. H., & Park, K. S. (2003). A comparative study of nurses and physicians' attitudes about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therapy. *J of Korean Acad of Adult Nurs*, 15(3), 402-410.
- Jensen, P. (1990). Alternative medicine. *J of Family Practice*, 45(1), 34-37.
- Jeong, Y. S., Moon, B. K., Nam, H. W., Park, J. S., Eum, S. Y., & Choe, B. M. (1998). The Survey on using alternative medicine in general population with medical problems: A pilot study. *Korean J of Psychosoma Med*, 6(1), 70-78.
- Kim, J. I., & Kang, H. S. (1999). Self management of pain by folk remedies in patient with chronic arthritis. *J of Rheu Health*, 6(2), 242-252.
- Kottow, M. H. (1992). Classical medicine vs alternative medical practice. *J of Med Ethics*, 18, 18-22.
- Oh, H. K. (1998). Alternative medicine- Its concept and prospectives-. *Korean J of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 1(1), 6-21.
- Panush, R. S. (1994). Alternative medicine: Science or superstition? *J of Rheumatology*, 21(1), 8-9.
- Park, M. S. (1994). *The effect of the hand-massage on anxiety of the cancer patients receiving radiation treatment*. Master dissertation, Dep. of Nursing, Seoul National

- University.
- Park, J. M., & Chung, B. Y. (1995). Folk Remedies used by patients with breast cancer. *J of Korean Acad of Nurs*, 25(3), 419-429.
- Son, H. M. (1999). *The experience of patients seeking alternative therapies for chronic liver disease*. Seoul National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 Son, H. M., & Suh, M. J. (1998). A survey of utilization of alternative therapies in chronic liver disease. *J of Korean Acad of Adult Nurs*, 10(1), 134-147.
- Thomas, K. J., Carr, J., Westlake, L., & Williams, L. (1991). Use of non-orthodox and conventional health care in Great Britain. *BMJ*, 302, 207-210.
- Um, D. C., Lee, Y. S. (1997). A study of the application of folk medicine in patients with DM. *J of East-West Nurs Res*. 1(1), 72-80.
- Yang, N. Y., & Shin, K. R. (2003). The analysis of research trend about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therapy in nursing of Korea. *J of Korean Acad of Adult Nurs*, 15(2), 226-235.

The Analysis of Trends in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Therapy (CAT) in Nursing Research in Korea

Han, Kyung-Soon¹⁾ · Im, Nan-Young²⁾ · Song, Kyung-Ae³⁾
 Hong, Young-Hye⁴⁾ · Kim, Jong-Im⁵⁾ · Kim, Kyung-Hee⁶⁾ · Cho, Nam-Ok⁷⁾

1) Department of Nursing, Shin-heung College, 2) Department of Nursing, Hanyang University
 3) College of Nursing, Catholic University, 4) Department of Nursing, Choonhae College
 5) Department of Nursi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6) Department of Nursing, Chungang University
 7) Department of Nursing,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rends in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therapy in nursing research in Korea. **Method:** The researchers examined academic theses and dissertations published from 1990 to 2002, and 151 articles were used for the analysis. **Result:** Nursing research on CAT increased rapidly from 1995. Articles with quantitative research designs made up 93.9% of the total and there were more experimental studies than non-experimental studies. Patients who had surgery, mental disorders, renal failure, hypertension, arthritis, dementia & cancer were the most frequently participants in studies on CAT. The type of CAT used in nursing research were mind-body therapy (65.8%), manual healing therapy (28.7%), pharmacologic & biological therapy (3.7%), bioelectromagnetics (0.9%) and herbal therapy (0.9%). In 44 articles both psychological and physiological parameters were used as dependent variables. In 34 articles only physiological parameters were used and in 13 only psychological parameters. The most frequently used physiological parameters in CAT were pain, physiological function and vital signs, while the most used psychological parameters were anxiety, depression and stress. **Conclusion:** More studies about CAT are needed to extend the role and fields for professional nursing. There is a need to conduct qualitative studies in nursing about the experiences of patients who receive CAT and nurses who use CAT.

Key words :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therapy, Research trend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Cho, Nam-Ok
 Department of Nursing,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 169, Dongsung-dong, Chongro-Ku, Seoul 110-791, Korea
 Tel: +82-2-3668-4745 Fax: +82-2-3673-4274 E-mail: okcho@knou.ac.kr